

상록탑

우리는 매 순간 여성혐오에 대해 생각한다

“이대 아직도 메이퀸 해요? 아, 가서 봐야 하는데.”

“여대는 어때요? 원래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잖아.”

이화를 벗어나 잠시 외부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중이다. 처음으로 이화라는 공간을 벗어나 ‘진짜 사회’에 나왔다. 연습이긴 하지만 드디어 사회인이 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내가 ‘여자’라서 겪는, 말로만 들던 사회생활에서의 성적 차별을 실습 첫 날부터 느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글의 가장 처음 두 문장이 바로 그날 내가 들었던 말이다.

내가 실습 중인 기관엔 나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남녀공학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사 중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우리 학교를 그 자체가 아닌 ‘여자’들이 다니는 대학이란 특징에 초점을 둔 질문을 많이 한다. 이화여대라고 하면 곧바로 여자밖에 떠오르지 않나보다. 또, 여자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화려했고 단아하게 꾸민 외적인 모습만을 상상하거나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단순히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왜곡한다.

선배들의 충고 덕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이화 밖에서의 질문들이었다. 학



김승희
사회·문화부 부장

“
작은 재미들의 외침이 모여
뿌리 깊은 성차별 문제
해결할 것

교에 다니는 동안 저런 질문들에 강경하게 반응하겠노라 수없이 다짐했지만 막상 닥뜨리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상사에게 밉보이면 안 되는 일개 실습생은 그냥 멧쩍은 표정으로 “메이퀸은 폐지된 지 오래예요”, “아니예요, 그냥 다들 열심히 하는 거죠” 등의 부끄러운 대답만 할 뿐이다.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이화를 ‘이토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다. 이토피아는 이화와 유토피아의 합성어로 이화여대가 유토피아처럼 구성원들이 행복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이화에서는 우리가 여학생이 아닌 대학생이 될 수 있다. 모든 일의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협력해 주어진 것을 진행하고 완성시킨다. 누가 여자는 남자 없이 못 산다고 하는가. 우리는 우리끼리도 아주 잘 살고 있다.

혹자는 여성인권, 페미니즘에 관한 글이 본지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나를 비롯한 이대 학보 기자들 및 독자들이 계속해서 오피니언 면에 여성을 주제로 글을 쓰고 여성혐오 문제를 비판하는 기획 기사를 구성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여성을 업신여기는 그들에게는 지나가는 재미의 외침처럼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바른 시각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외침 것이다.

성적 차별은 그 뿌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고 하지만 그 뿌리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언젠간 썩고 말 것이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그때서야 한국은 유토피아로의 첫 걸음을 뒀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총학, 일 처리 방식부터 개선돼야

15~17일 대동제 기간 중 첫날을 제외하고 쏟아진 폭우로 부스가 부서지고 동아리 공연들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10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태다.

기상청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비 소식을 전했으나 총학생회 대동제 기획단(기획단) 측도 한 달을 넘게 준비한 대동제의 날짜를 쉬이 바꾸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12일 총학생회(총학)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지한 ‘대동제 우선 시 대책 논의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글에 따르면 기획단은 5월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폭우가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실내 부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학교 측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놓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제 당시 기획단이 현장에서 보여준 대처는 미흡했다.

부스 운영 여부 논의를 통해 결정된 공지가 부스 운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왔을 뿐더러 그마저도 번덕스러운 날씨 탓에 반복돼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부스들은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들었다. 또한 예정되어 있던 여러 동아리의 공연 장소도 실내 부스 내에 마련돼 인파가 몰린 탓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지 못해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미흡한 대처는 부스와 동아리 각각의 경제적 손실, 홍보 부

실로 이어졌다.

미흡한 대처에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현 총학이 활동을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미흡한 일처리 방식도 문제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동제 당시 각종 우천 대비 방식을 논의하는 학생들,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학생들이 나누어 있었다. 이런 양분된 시스템은 대동제 참여자들이 원활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켰다. 일각에서는 논의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총학은 개강 후 2개월 동안 총 13번 이상의 사과문을 본교생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사과문의 종류는 성희롱 심의위원회 피켓시위 취소부스스크랜튼 및 정시통합선발생 명칭 혼란, 대동제 당시 부스배정과정 논란 등 다양했다.

사과문마다 총학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사과문이 앞으로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 사태를 바탕으로 올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총학의 내부적 일 처리 효율성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 칼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김소월이 여자가 아니에요?”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던진 질문이다. 국어를 관심 있게 배웠던 학생이었다면 한 번쯤 들었던 의문일 것이다. ‘소월’은 얼핏 봐도 여자 이름인데다 그의 시를 ‘여성적 어조’로 설명하는 참고서 해제가 많기 때문이다. 국어 과외를 하며 3번 정도 받은 질문이라 “응, 본명은 김정식이야.” 라고 대답해줬다. 그런데 뒤이어 물어오는 학생의 말에 꿀떡은 병어리가 됐다.

“왜요? 왜 김소월인데요?”

집에 가서 찾아보니 소월은 한자로 素月, 흰 달을 의미한다. 유년 시절 남산골에서 달맞이를 즐겨했던 그는 자신의 호를 소월로 지었다. 실제로 그의 시를 보면 달을 시상으로 한 작품들도 많다. 흰 달이 갖는 애상과 서정이 소월의 시 속에 잘 묻어나 있다. 흰 빛으로 서정을 노래하던 그는 서른 두 살의 짧은 나이로 요절하여 달처럼 으스러졌다.

필명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뫼니 뫼니 해도 이육사일 것이다. 감옥에 있을 때 부여받은 죄수번호 264를 그대로 필명으로 삼아 작품을 발표한 그의 본명은 이화일이다. 그는 의열단에 가입해 직접적인 항일무력투쟁을 벌인 기개 넘치는 애국지사였다. 죄수번



서현정
커미-15

“
자기정체성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보자

호를 오히려 작가의 정체성인 필명으로 삼은 것은 ‘죄수’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는 그의 시대정신을 보여준다.

이름 속에 자신의 시적 의지를 오롯이 담은 것은 <노동의 새벽>으로 유명한 박노해다. 그의 본명은 박기평으로 ‘박해받는 노동자(勞)의 해방(解)’의 앞글자를 따서 필명을 지었다. 독재정권이 지배논리가 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보이지 않던 시절, 얼굴 없는 시인으로 활동한 그는 철저히 노동자의 눈에서 바라본 세상을 그려냈으며 실제로

도 노동해방의 최전선에서 투쟁의 삶을 영위해나갔다.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이름의 화신(化身)이었다.

이처럼 어떠한 시를 감상할 때, 작가의 이름에 드러난 의미를 인지하면 훨씬 더 풍부한 작품 감상이 가능하다. 이름은 작가의 시 세계, 그리고 작품 너머 삶 자체도 품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소월, 육사, 노해는 모두 그의 필명 속에 시의 주제가 집약되어 있다. 모두 작가들 자신이 주체적으로 삼은 필명이다.

이름은 곧 정체성이라는 등식은 삶의 어느 곳이나 성립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쓰이는 이름은 선천적으로 생명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부모님 혹은 작명소에서부터 부여받는 나의 이름은 어찌 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단정 짓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꼭 글을 창작하는 작가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름은 평생 남으로부터 불리는 나 자신의 공명이며 죽어서도 족적으로 남을 삶의 흔적이다. 결국 이름은 영원한 나의 자기정체성의 발현인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직접 나의 이름을 지어보는 것이 어떨까.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시대정신을 담은 이름을 짓는 행위는 곧 내안의 나를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론광장

졸업해도 졸업하지 못한 것

“학생! 오른손을 허리에 놓고 옆구리를 조금 더 틀어 봐요. 아니 좀더! 그렇지!”

화창한 5월이 되던 ECC 꼭대기 공터는 졸업사진을 찍는 학생들로 북적인다. 이화에 발을 처음 딛던 새내기 시절, 예쁘게 차려입은 선배들이 하얀 네모 단상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오며가며 구경하는 것은 봄날의 소소한 재미였다.

‘언젠가는 사진을 찍을 날이 오겠지’ 하며 지나치던 그 장면들 속에, 어느덧 나도 졸업예정자가 되었다. 촬영 공지 문자를 받았을 때는 나도 드디어 졸업사진이라는 것을 찍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냥 설렘했지만, 막상 사진을 찍으려 하니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다. 촬영 시간에 맞춰 이른 아침에 메이크업샵 예약을 하고, 당일엔 입을 정장과 구두, 착용할 악세사리 구입까지. 그동안 말린 과제와 시험공부, 취업준비를 하

기에도 바쁜 일상 속에 한 덩이의 짐이 추가된 느낌이었다. 좋은 추억을 남길 겸 가볍게 찍으려 했던 졸업사진이 이렇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이야.

‘졸업사진 탑’, ‘졸업사진 원피스’, ‘졸업사진 메이크업 추천’ 같은 단어들로 내 포털 사이트 검색창을 일주일 정도 꽂 채웠다. 남들이 다 찍는 졸업사진이라 나도 찍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똑같이 찍기는 싫다는 이상한 고집이 생겨, 결국 원피스 대신 정장바지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는 것으로 스스로와 타협을 봤다. 기형적인 여성복 사이즈 때문에, 내 몸에 맞는 바지를 찾는 데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허리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딱 맞게 들어가는 정장을 겨우 사서, 다음 날 메이크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껍까지 하고 침대에 누우니 기분이 참 묘했다. 흑여나 당일 날 배가 나와 보일까봐 아침과

점심을 거의 굶다시피 했고,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 부채질을 해대며 높은 구두 위에 올라가 절뚝절뚝 걸어 사진 촬영 장소로 향했다. 사진사 아저씨의 지시에 따라 허리를 이리저리 틀어가며 야외촬영부터 실내촬영까지 마치고나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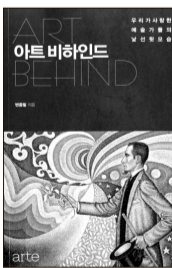
하루쯤 코르셋 바짝 조여매고 고생해서 동기들과 오랜만에 예쁜 사진들과 추억을 남기는 건 제법 신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두꺼운 앨범 속에 실릴 사진 몇 장을 위해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들을 이제 와서 돌아켜보니 밀려오는 허무함을 차마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졸업사진을 품에 안고 이화를 떠나게 될 졸업예정자이지만, 아직도 졸업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 가끔씩 나의 몸과 마음을 옥죄는 코르셋들로 범벅된 졸업사진 속 나는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아직 졸업하지 못한 나는 사실 아주 많이 슬프다. 김지원(연문-14)

만평

우아한 만평기자 wah97@ewhain.net



금주의 책



아트 비하인드

- 변종필 지음, 파주: arte : 북이십일 아라테, 2017.

이 책은 현직 미술관장이자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는 저자가 ‘변종필의 미술대 미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칼럼 중 39편을 골라 엮은 책입니다. 저자는 동서양을 아우르며 닳은 듯 다른 화가, 작품, 미술사에서 논쟁이 되는 키워드들을 비교하고, 우리가 알던 예술가들의 낯선 뒷모습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독자가 좋은 예술작품들을 통해 일상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이해를 키우길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명작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가치들을 되돌아보고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길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3층 일반자료실 700.2 변8150A]

0418-0517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인소의 법칙	유한려	Itbook : 디앤씨미디어	2015-
2	도쿠가와 이에아사	산강장팔	솔	2000-2001
3	경성탐정사무소: 박하민 장편소설	박하민	로담	2016-2017
4	(정령왕) 엘퀴네스 : 이환 판타지 장편소설 / 개정판	이환	드림북스 : 삼양출판사	2011-
5	모방범 : 미야베 미유키 장편소설	궁부미유키	문학동네	2006
6	미술과 성서	정은진	예경	2013
7	화홍	이지환	청어람	2004-2010
8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James, E. L.	시공사	2012
9	Modeling monetary economies 4th ed	Champ, Bru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10	말이 트이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